

나주로컬푸드 명절 특수에 매출 '깡충'

추석 연휴 30% 증가...누적 판매액 200억 눈앞

소비자 먹거리 신뢰도 탄탄...엄격한 관리 비결

나주로컬푸드 직매장이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추석 명절 특수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추석 황금연휴를 앞둔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 간 빛가람·금남점 직매장 2곳에서 진행된 로컬푸드 선물 특판전이 성황을 이뤘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직매장 2곳 매출은 일평균 매출 30%가량이 증가한 약 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빛가람점은 특판전이 한창이던 지난 13일 하루에만 5,000만원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일매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올해 빛가람직매장 하루 평균 매출액은 약 1,200만원으로 2015년 개장 당시 매출대비 3배 가량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7월 누적매출 100억원 돌파에 이어 지금까지 190억원을 넘어서며 200억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먹거리 신뢰에 기반한 소비자 회원 등록 상승세도 꾸준하다.

개장 이후 4년 반이 지난 2020년 상반기 회원 1만명을 돌파했으며 9월 현재 1만1,917명이 소비자 회원으로 등록했다.

등록 회원을 포함한 방문객은 일평균 633명으로 통계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만명 이상이 직매장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육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주로컬푸드가 꾸준한 소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비결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공산품이나 수입산 제품 없이 얼굴 있는 지역 농산물을

취급해오며 시민들과 끈끈한 신뢰를 다져왔다.

신선함이 생명인 농산물의 경우업체류는 1일, 근채류 2일, 과채류 3일 등 정월 기간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2016년부터 매달 시행하고 있는 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소비자 식탁에 오를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한다.

강인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주로컬푸드가 추구하는 상생의 가치에 신뢰와 공감을 보내주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재승 기자



담양군은 28일 유네스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앞두고 무등산권 가치를 재조명하는 지오 토론회를 가졌다. /담양군 제공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가치 재조명

담양군, 재인증 앞두고 전문가 토론회...활성화 모색

담양군이 28일 유네스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앞두고 무등산권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지오(Geo)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정 3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재인증을 앞두고 지역민의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강재원 도래수마을 대표, 허민 무등산권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공동대표, 정은성 호남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정란 자연음식연구소장, 문형태 정풍 지오빌리지 협의회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진행했던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사업과 지오빌리지 운영 사례,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먹거리 개발 성과 등을 되짚어보고 관광 등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유네스코는 2018년 담양군과 광주, 화순군에 걸쳐 있는 무등산권 일대를 '유네스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했으며, 담양군 전 지역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지오토론회는 광주MBC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오는 10월 2일 방영될 예정이다. /담양=정일남 기자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27일 장성지역 청년 창업 사업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장성군 제공

허태웅 농진청장, 장성 청년 창업농 방문

소규모 농산물 가공 사업장 '가온찜뜰' 찾아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27일 장성지역 청년 창업 사업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유두석 장성군수와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이 동행해 지역 농업의 현실과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허 청장이 찾은 곳은 황룡면 소재 '가온찜뜰'로, 직접 재배한 새싹삼을 이용해 차와 청을 만드는 농산물 가공 사업장이다. 농진청으로부터 제조 기술을 전

수받아 쌀강정 등의 전통과자도 생산하고 있다. 과자를 만들 때 새싹삼 청을 사용해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다.

현장 시찰을 마친 허태웅 청장은 "농식품 생산 현장의 어려움을 발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이 크지만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직거래장터 개설,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등 판로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면서 "농진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풍요로운 부자농촌 건설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농촌진흥청 산하 국가기관인 국립야생약물박물관을 삼계면 일원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유두석 장성군수가 농진청을 방문해 허태웅 청장과 실증센터 조성에 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시설구축 비용 350억원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오는 2023년 무렵 완공될 예정이다. /장성=전일용 기자

화순 청춘문화살롱 모집

내달 1일까지 신청·접수

화순군이 10월 1일까지 '2021 화순군 청춘 문화살롱' 수강생을 모집한다.

화순군 청춘 문화살롱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공동체 문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년 문화 프로그램이다.

청춘 문화살롱은 2019년 화순군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강의·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문화적 감성을 해소하고 활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자리 잡았다.

올해는 ▲가족공예(클러치)를 통한 성취감 도달 ▲손끝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쥘 네일아트 ▲윌링이 되는 윈데이 클래스(마크라메, 네온사인, 마카롱, 수제비누 등) ▲취업준비생을 위한 이미지 트레이닝 ▲자립을 돕는 재테크 강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총 21강으로 구성돼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취업과 생업에 지친 청년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 몸과 마음을 치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화순, 쌀 소비 촉진반 비대면 교육 호응

화순군이 쌀의 중요성 인식과 우리 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리더를 육성, 쌀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쌀 소비 촉진반' 비대면 교육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근 진행된 교육에 지역 어린이집 교사, 조리사, 음식 관련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쌀 스킨 만들기 실습 교육과 '우리 쌀 중심 식습관 형성 교육프로그램' 학습지도안, 활동지 활용 교육을 했다. 28일에는 어린이집 12곳을 대상으로 쌀로 만

든 지역 향토음식 알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리 쌀 중심 식습관 형성 프로그램 '벼가 속속, 쌀이 듬뿍'의 학습지도안과 유아용 활동지 활용 교육을 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린이 교사는 "밀가루가 아니어도 쌀로 맛있고 몸에 부담 없는 건강한 빵을 만들 수 있어서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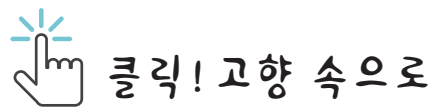
장성, 돌발해충 지난해 대비 38% 감소

올해 장성군의 돌발해충 발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 8월부터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전해 대비 38%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기에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0여 농가에 방제용 약제를 무상 지원하는 등 돌발해충 발생 억제에 집중하는 것이 주효했다.

한편, 군은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가 공동방제기간으로 정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계획이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나주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모집

나주시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발굴에 함께 머리를 맞댈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나주시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분야별 정책을 발굴, 제안하는 협력 기구이자 소통 창구로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의거, 2017년 출범했다.

제3기 위원은 '청년능력 및 청년문화·예술', '일자리 및 농업·농촌활동 지원' 2개 분과에 만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20명 내외를 모집한다.

신청 방법은 오는 10월 8일까지 시청 누리집 게시된 신청 서류를 작성·접부해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나주=조충권 기자



중부권아동보호기관, 여성위생키트 기탁

나주시는 지난 27일 전남중부권아동 보호전문기관(기관장 유기용)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400만원 상당의 보건위생키트 40개를 기탁해줬다고 28일 밝혔다.

기탁물품은 한 독지가의 기부 후원금을 활용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기획한 '별처럼 빛나는 너에게 KIT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당 키트는 6개월 분량 생리대와 파우치, 속옷, 온찜질팩 등 보건위생용품 7개로 구성됐다.

유기용 기관장은 "세계 어려움으로 일상용품 구비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주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위한 나눔을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충권 기자



함평 다문화가족 큰잔치 장기자랑 시상식

함평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기영)는 최근 막을 내린 '제3회 다문화가족 큰잔치'에서 나뉜 찬 학생(전남예술고 2학년)이 장기자랑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전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남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62

개의 장기자랑 및 이야기자랑 동영상 중 장기자랑 5개팀, 이야기자랑 5개팀을 선발해 본선을 치렀다.

나뉜 학생은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OST 중 '나비'라는 곡을 연기에 호평을 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특기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